

막다른 골목, 위기, 다른 세상 ‘서이초 사건’

교육의창

조재호

무등초 교사



“지금까지 많은 해결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생산자들이 실천자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고안은 실천자들의 사고방식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윗글에서 ‘생산자’들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행정가다. 실천가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이 글은 광주교육대학교 초등학교 문화연구소가 펴낸 ‘초등교사 되기: 초등교사의 직업사회화(2005)’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님이다.

지난해 7월18일,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사들은 ‘검은 점’이 됐다. 9월2일은 사상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징계를 위협했던 교육부와 교육청도 어쩔 수 없었다. 올해 초, 순직이 인정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도 개정하고 있다.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고 있나?’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정말 새로운 길이 생기고는 있는 것일까? 초등교사로서 ‘검은 점’ 일원으로 떠오르는 여휘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막다른 골목’, ‘위기’, ‘다른 세상’.

지난해 수많은 교사들은 ‘막다른 골목’의 우울감을 경험했다. 송원재 선생님의 저서 ‘교사가 아프다’가 묘사하는 선생님들의 상태가 그렇다. 학교는 민원 공화국에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누구도 보호막이 돼 주지 않는다. “애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부터 “아이가 수업을 방해해도 연락하지 마세요. 난 할 만큼 했어요”라는 민원을 받을 때 교사들은 막막하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데, 관리자는 보이지 않는다. ‘무책임한 교장’과 ‘무서운 학부모’의 조합이 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바람을 통해, 언론을 통해 귀에 들어온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느낌에 들기 시작한다. 마치 미로에 갇힌 실험용 쥐가 무기력을 학습하듯.

‘위기’ 감은 대한민국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나.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를 말한다. 그런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알게 됐다. 국내에서 제일 부유한 강남부터, 전남 땅끝마을까지. 사연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 일임을.

기후 위기를 단일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듯, 교육위기는 인류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선진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교육의 위기와 교권 붕괴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왜일까? 이는 공교육이란 사건의 지평과 자본주의란 사건의 지평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원리는 투입과 산출의 합리적인 분배에 의한 성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공교육에서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늦게 배운 어린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 거기다 자기 삶마저 통제하기 힘들어 아이를 방치하는 학부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이다.

‘다른 세상’. 교육감님은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실까? 태블릿을 나눠주고 스티디카페를 지어주고 선심성 학부모 연수를 해줘서 전국 1등 교육청이 된 세상. 하지만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마치 카프카의 성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세상. 교육감님이 연구자 이정선 교수로서의 관점을 회복하시길 바란다. 교사의 삶과 소통하지 않은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단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광주 교사들이야말로 실천하고 싶다. 그러려면 남아도는 태블릿이 아니라 더 행복한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광주 교사들이 맞이한 서이초 1주년은 너무 암울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욕야카르 타주 슬레만의 한 마을에서 관측된 므라피 화산이 용암을 분출하고 있다.

뉴시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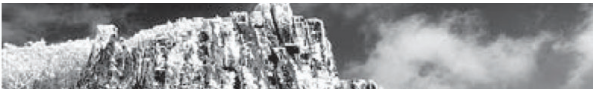
특정 생물을 죽이거나 먹이로 삼는 생물을 ‘천적’이라고 한다. 생태세계에서는 각 생물들이 자연의 원칙에 따라 먹고 먹는 천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먹이사슬’이라고 부른다.

스포츠계에도 때로는 전력차를 뛰어 넘는 천적관계가 형성된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올시즌 프로야구와 프로축구판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프로야구 시즌 개막 후 출근 1위를 달리고 있는 KIA타이거즈는 SSG를 더스와 롯데 자이언츠만 만나면 유독 기를 펴지 못한다. KIA는 지난 2~4일 삼성 라이온즈와 9~11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연속 시리즈 스윙승을 거두면서 선두 자리 굳히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KIA는 SSG를 만나 맥없이 무너졌다. 지난 12일 경기에서는 6-14로 대패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고, 13일 경기에서는 9-15로 재역전패를 당하면서 연패에 빠졌다. 연패로 KIA는 올 시즌 SSG전 상대 전적에서 3승 8패로 약세를 이어 갔다.

KIA는 롯데를 만나도 쪼쩍 매고 있다. KIA는 지난달 25~27일 네일~알드레드~윤영철로 이어지는 선발진을 내세워 롯데전 약세를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과는 1무 2패였다. 이로써 KIA는 올시즌 롯데전 3승 1무 8패로 열세 흐름이다. 특히 사직 원정 경기에서만 1무 5패로 단 1승



도 거두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KIA는 2위만 만나면 기운이 솟아난다. NC 다이노스가 2위였던 5월 17~19일 창원 원정에서 스윙승을 거두며 선두를 지켰고, 이후 2위에서 KIA를 상대한 삼성, 두산, LG를 상대로는 모두 우세승 또는 스윙승을 거두며 ‘2위 사냥꾼’으로 군림하고 있다.

프로축구 광주FC는 ‘강호’ 울산HD를 상대로 ‘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울산은 명실공히 K리그 최고 팀이다. 국가대표급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자랑한다. 벤치에도 스타들이 즐비하다. 이를 바탕으로 리그 2연패를 달성했고, 올시즌에도 유력한 우승 후보다.

하지만 광주는 울산만 만나면 필패 난다. 광주는 지난 10일 울산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기면서 최근 울산전 4연승을 질주했다.

반면 광주는 대구FC와 수원FC에는 열세를 드러내고 있다. 올시즌 대구에는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했고, 수원FC와도 모두 1골 차로 쓰라린 패배를 맞았다.

스포츠는 심리가 중요하다. 전력이 약해도 자신감을 갖는다면 강팀도 이길 수 있다. KIA타이거즈와 광주FC가 남은 경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천적들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社說

어처구니없는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광주 초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재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일 16명의 학생들이 구토와 복통, 고열 등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12일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이 추가되는 등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3~9일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단을 구성, 대규모 및 급식 시설 취약 학교 등 5개 학교를 방문해 위생 실태 점검을 했다는 것이다.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한 해당학교에 대한 위생점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점검 이틀만에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한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교육당국의 학교 점검이 부실했거나 해당 학교의 허술한 급식실 위생이 도마

에 오를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식중독 발생 건수는 광주가 △2021년 11건(50명) △2022년 6건(40명) △2023년(잠정) 11건(906명)이며, 전남은 △2021년 13건(145명) △2022년 13건(81명) △2023년(잠정) 11건(169명)으로 나타났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음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식중독 증상이 쉽게 낫지 않는다. 식중독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4~5일 증상이 동반되며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중독은 매년 여름철이면 끊이지 않게 발생한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판에 박힌 말만 한다. 이번에도 한결같다. 식품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은 후진국형 사고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복지시설 호봉제 전환 환영한다

내달부터 처우개선 계획 시행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휴가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처우가 향상되는 것이 기관 이용자들의 행복이 배가 되는 일인 만큼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설명이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몰입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일임금 보장을 위해 ‘전 시설 호봉제 전환’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49곳 3900여 명의 종사자가 대상이며 총 260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후가도 경력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늘렸다.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기존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유급병가 사업비는 확대하며, 상해보험료와 보수교육비 지원은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해 왔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보호받지 못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임금이 대표적이다.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거나 같이 입을 모은다. 운영책임자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폭언과 비하 등 갑질 사례 호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시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퇴사자들의 민원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복지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인정도 강화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광주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일탈을 막을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혈세를 들여 복지시설 운영자의 배를 불릴 수는 없는 일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